



신용카드사 동향과 금리 수준 합리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감원의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발행된 신용카드 수도 소폭 증가함.
 - 2011년 6월 말 전업카드사 총 채권 연체율은 2010년 말 대비 0.06%p 상승한 1.74%로 나타났으며, 카드채권 연체율은 0.08%p 상승한 1.50%로 나타남.
 -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200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1년 3월 말 최저치 기록 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.
 - 2011년 6월 말 기준 발행된 신용카드 수는 하이패스 카드, 정부 복지카드사업, 법인 임직원복지카드 증가 등으로 2010년 말 대비 4.8% 증가한 8,936만 매를 기록함.
-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주요 건전성지표가 양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나, 최근 대외 불안요인이 증가한 만큼 잠재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.
 -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카드회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카드자산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.
 - 고위험자산 증가를 유발하는 카드사간 외형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, 리스크 분석·평가,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신용카드사는 금감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및 금리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함.
 - 신용판매 리볼빙의 경우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를 인하하기로 함.
 - 신용카드 연체금리의 경우도 약정금리와 비교하여 너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함.

(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등, 금감원, 8/29)